

다사 다난 2019년 결산, 새해는 화합과 부채 탕감 역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2019년 12월 15일(주일) 교육관 그리스도 왕 홀에서 사목협의회 위원과 산하 단체장 31명 참석 한 가운데 2019년 마지막 회의를 겸한 송년회를 사목회장의 간단한 인사와 다과 출장 한식 뷔페 음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사목협의회는 금년 마지막 결산송년회를 사전 참석인원 34명으로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시작 기도시간까지 19명만 회의 참여해 설렁한 분위기 속에 사목회장 인사말을 통하여 ‘올 한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사목협의회 위원과 교우들 사이에 서로가 불편하였다면 마지막 보내는 결산송년회를 기하여 화해하고 내년엔 더욱 화합된 분위기 속에 연 재정이 6억 3천여만원 조성되어야 원만한 본당을 운영할 수가 있으므로 교무금과 성전건립기금 10% 인상책정이 불가피한 현실이다.’란 말과 주임신부님께서 서면통지로 ‘화합과 부채 탕감이란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부채보다 화합이 되어야 복음적이다. 사목협의회 위원들은 복지부동으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수입 낼 수 있는 사목활동에 임하는 자세로 바꾸어야 한다.’란 내용을 요약하고 결산송년회를 마쳤다.

길 잃은 어린 양 24명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에서 2019년 12월 15일(주일) 세례자 24명이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교증미사 중 물과 성령으로 세례성사를 받았다. 이번 세례성사자 중 13명은 지난 6월부터 매주 미사 전 류현숙 루시아 수녀님부터 믿을 교리 참 하느님 알고 영생 구원, 삼위일체, 우주 창조, 아담과 하와, 원죄에서 죽음과 공심판, 천국 지옥, 연옥 육신 부활과 공심판, 지킬 계명, 칠성사와 주요 기도문 등 교리교육 이수자와 이주여성 디딤터 11명은 서울대교구 사회 사목국에서 여성 복지 센터로 파견해 예비자 교리를 실시해 이번 12월 15일에 세례성사를 받음과 동시에 본당 교적도 획득하였다. 세례자 명단은 고유나(로



사리아) 김계자(아가다) 김선미(임마콜리아) 김영도(세례자 요한) 김지연(베로니카) 김진아(올리비아) 박정현(마리아 막달레나) 변준숙(레아) 성현자(소화 데레사) 안인순(소화 데레사) 이한성(야고보) 이한준(사도 요한) 최달국(안드레아) 고은주(안나) 김미경(안젤라) 바또모르 잉크토아(안젤라) 부티프 엉타오(엘리사벳) 웅웁김풍(레지나) 웅위엔티투항(엘리사벳) 이윤희(올리비아) 정하이(빅토리아) 즈영티호영(로사) 팜티산(요안나) 편(마리아) 총 24명이 하느님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